

전남 무안 육용오리 농장,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확인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이하 중수본)는 1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(33,000여 마리 사육)에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.

- *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(23.12.3.~) : 25건(육용오리 10, 종오리 1, 육용종계 2, 산란계 12)
- ** 고병원성 여부 검사 중 : 1건 (전남 무안 육용오리^{26차(잠정)})

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, 예방적 살처분,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, 전라남도 오리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(Standstill) 명령을 발령한다.

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월 4일(목) 오전 10시부터 1월 5일(금)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, 전라남도 전체 오리 사육농장 및 농업회사법인(주)다솔의 오리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,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.

- *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

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,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(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),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, 기계·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·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아울러,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,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*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- * 사료섭취 저하, 침울, 졸음, 호흡기 증상, 노변(녹색 설사) 등

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☎ 1588-9060 / 4060

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
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	김용상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석재 (044-201-2555)
	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	책임자	과 장	이현준 (044-201-7491)
		담당자	사무관	임호균 (044-201-7502)

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예방 「농장 4단계 소독」 요령

1단계 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

농장진입로 폭 2m이상
생석회 충분히 도포

출입구 고정식·고압분무기
2단계소독



- 1주일 간격 반복 도포
- 고장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 추가 소독
- 비는 내린 후 즉시 재도포

2단계 농장 내부 관리 철저

농장 내부(축사 밖)
매일 청소·소독

부출입구·뒷문 폐쇄



- 농장내 야생조수류 유인 요소 (시료·폐사·축왕겨) 매일 청소소독
- 전실 마설치 축사 뒷문(쪽문) 폐쇄
- 방역·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폐쇄
- ※ 소독약은 용법용량 권장 희석배수 준수

3단계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·손 소독

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
손소독(위생장갑 착용시 포함) 실시



※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~3일 간격 교체

- 전실에 전용장화·손소독제 비치·전실 매일 소독
- 신발(장화)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
-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

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

축사 출입구, 내부 통로, 환기구 등 집중 소독
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및 안개분무 소독



- 사람·가족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
- 가족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

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
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림축산검역본부
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